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행해서

<육>도 영광스럽게 살고, <영>도 영광을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에서 ‘영광의 역사’로 계속 진행해 나가지만, <세상 역사>는 ‘고난과 고통의 역사’로 끝나 버린다. <육>으로 끝난다.
2.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 놓으신 것을 보면, <구약>은 ‘종의 역사, 고난의 역사, 환난과 고통의 역사’였지만 <신약> 때가 되어 ‘하나님이 자녀로서 대해 주는 사랑의 세계, 영광의 세계’가 되었다. 그리고 <신약, 자녀로서 대해 주는 세계>에서 이제는 ‘성약, 애인으로 대해 주는 영광의 세계’가 되었다.
3. 인생들은 살면서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 ‘곧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며 소망을 갖고 막연히 기다리고 좋은 날을 원하며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막연한 세계’가 아니다. <완벽히 예정된 세계>다.
4. <육적으로 산 자>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았어도 ‘육의 영광’으로 끝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며 산 자>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면 육도 영도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다. - 이것은 100% 예정되어 있다.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이긴 자들〉은,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영광을 누린다. 꿈속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해 주시고, 천사들은 시중을 들면서 영광을 받게 한다.

5. 〈지난날의 고난〉은 ‘앞날의 영광’을 위해 씨를 뿌린 것이다.
6. 농부가 씨를 뿌리면, 비바람을 맞고 땀별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 〈영광〉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7. 사람들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견디고 살아야 되나?’ 하는데, 이는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다.
8. 〈손〉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듯이, 〈생각〉도 그러하다.
9. 하나님께 〈뇌〉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뇌〉가 ‘손’이다.” 하셨다. 〈손〉과 같이 다양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손〉이 가면 ‘뇌’에 반응을 일으키니, 〈뇌〉가 ‘손’이라고 하신 것이다.
10. 〈뇌〉는 ‘신경 덩이’다. 여러 신경 중에 ‘생각 신경’을 건드리면, 그에 해당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흥분 신경’도 있다. 〈여자〉는 과일 속에 있고, 〈남자〉는 생명나무에 있다. 그리고 ‘성질나는 신경, 화나는 신경’도 있다.

11. <핵>은 ‘뇌’에 있다. 고로 ‘뇌의 생각’을 건드리면 바로 흥분해 버린다.
12. <뇌>는 ‘축소시킨 몸’이다. 뇌 속에 ‘귀’도 들어있고, ‘눈’도 들어있다. 성경에서 <마음의 눈>이라 한 것도, 막연한 ‘눈’을 말한 것이 아니다. <뇌>에는 ‘눈과 통하는 핵 신경’이 있다.
13. <뇌>는 ‘몸의 축소체’이니, 하나님도 시대 신부들에게 “<뇌 사랑>을 하자. <뇌>를 흥분시켜라. <생각>으로 ‘뇌’가 흥분된다.” 말씀하셨다.
14. <뇌 사랑, 정신적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다. <뇌 사랑, 정신적 사랑>을 하면, 영들이 서로 실체로 사랑한다. <생각>으로만 사랑해도 ‘생각 실상 세계’가 되어 육신으로 사랑한 것과 같다.
15. 성령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면, 꿈에 자기 혼이 이성 관계하는 것이 보이기도 한다. 이는 <상대>가 ‘주’나 ‘성령님’의 상징으로 나타난 것이다. 혼체는 사랑의 행위를 한다.그러나 <영>은 완전한 존재체이기 때문에 이성 관계가 없다. <생각 실상 세계>로서 ‘생각’이 서로 일체 되어 사랑한다.

◎ <뇌>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겠습니다.

16. <뇌>에는 수학 공부를 하는 ‘수학의 뇌’도 있고, 과학 공부를 하는 ‘과학의 뇌’도 있고, 철학 공부를 하는 ‘철학의 뇌’도 있고, 종교 공부를 하는 ‘종교의 뇌’도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것을 각각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 이같이 <뇌>(에)도 ‘각종의 뇌’가 있다. <인간의 뇌>는 신경이 수십억 개인데, 각각 안 만들어 놓았겠느냐. 신기하게, 신비하게 만들어 놓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17. <뇌>에는 ‘우상을 섬기는 뇌’도 있다. 이 뇌가 발달되면, 거기에 흥분해서 계속 우상을 섬긴다.
18. <기성>도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났다고 믿으니, 계속 뇌가 거기에 흥분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올 것이라고 기다린다.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러하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 라고 했다. <자기의 사상, 무지의 사상>을 빼내야 된다.
19.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배워야 된다. <뇌>에 ‘말씀’이 제대로 안 꽂히니, 성령의 불을 받고 했어도 나가서 술 먹고, 방탕하게 돌아다닌다.
20. <은혜>가 충만한 것은 그것으로 끝난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뇌에 꽂혀야 된다. <말씀>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21. <새 시대>에 접붙이고, <주>께 접붙여야 된다. <기성>에 있으면, ‘기성 식의 휴거, 자녀권의 휴거’ 만 된다. <소나무>가 자꾸 크면 1m, 3m, 5m로 커 가는 것이지, ‘감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애인 세계>에 와야, 거기서 ‘신부급 휴거 역사’가 일어나고 신부로서 계속 차원을 높이며 간다. 이같이 그 세계는 그 세계로 커 가는 것이다. - 이는 하나님의 천륜의 법칙이다.
22. <선지자>도, <사사>도, <중심인물>도 모두 사람 중에서 난다. <시대 보낸 자>도 그러하다. 성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시어 나에게 이같이 가르치셨다. 그러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말고, 이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23. 수도 생활 중 선생이 예수님께 고하기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는데 4000년을 기다렸던 자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리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하루도 살 수가 없다고 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일생 동안 몸을 바쳐서 대신 그 일을 하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자꾸 커지면서, 완전히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다.
24. 선생은 21년 동안 산(山)기도를 하며 수도 생활을 했다. 한번은 성자에게 말하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10년이 넘도록 기도만 하냐고 하면서 이제 산에 안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하산하여 6개월 동안 산에 가지 않았다. 6개월 후에 어느 날 너무나 곤고하여 진산에 갔다 오는 길에 회골로 갔다. 거기서 성

자를 만났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니 산으로 가자고 하셨다. 그 날 집으로 안 가고 다시 다리골 기도굴로 갔다. 갔더니 성자가 나보다 먼저 와 계셨다. 그날 성자를 다시 만났던 곳이 회골 소나무가 있는 곳이다. 이러면서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면서 ‘성자 인봉’을 땀다. 하나님은 <성자>를 ‘구원의 책임자’로 땅에 보내시어, 한 사람을 쓰고 구원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은 내적 일을 책임지며 역사를 펴 오셨다.

25. <절대신>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해서 삼위일체의 절대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대로 행한 자>가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

26. 이같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푸니, ‘무지’를 깨닫게 되었다.

27. <기성>에서는 말세가 되면 지구가 녹아 없어진다고 한다. 2000년이 됐는데도 그 말대로 안 되니, 연기됐다고 한다. 하나님이 언제 하시겠다고 했으면, 연기는 없다. <정한 때>가 되면, 10명이든, 20명이든 지체 없이 행하신다. 준비가 안 됐으면 아쉽게 하고, 나머지 못 한 것은 후에 하신다. <잔치>도 원래는 100명이 와야 하기로 했는데 100명이 다 안 왔으면, ‘정한 때’에 잔치를 하되 그 후에도 연장해서 못 온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한다고 하셨으면, 정녕코 하신다. 그리고 <못 한 것>은 후에 역사를 진행해 가면서 하신다.

28. <기독교>는 연기됐다고 하는데, 이미 2000년에 오셔서 그때 행할 것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때 못 한 것은 연장해서 ‘부활 기간’에 또 한다.
29. <엄마>가 ‘엄마 시간’에만 맞춰서 하면 어린아이들은 못 따라간다. 고로 <엄마>가 ‘아이’에게 맞춰서 하듯, <하나님>도 ‘인간’에게 맞춰서 행하신다.
30. <휴거>도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은 ‘정한 때’에 하셨다. 그리고 그때 못 한 것은 연장해서 지금 ‘부활 기간’에 또 하고 있다.
3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모시고 살되, 형식으로 하지 말고 ‘실체’로 해야 된다.
32. 성령님께서 네 옆에 계시니, 이를 믿고 늘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자꾸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르고, 대화해야 된다.
33. <섭리사>에 오면, ‘하나님이 죽었다.’ 혹은 ‘하나님이 떠났다. 성령이 떠났다. 예수님이 떠났다.’ 하는 말을 안 한다. <기성>에서는 ‘행함’이 없으니 떠나 버리고, ‘사랑’을 안 하니 떠나 버리고, ‘불신’하니 떠나 버렸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냈으나 불신하니, 신앙이 죽어 버린 것이다.
34. <섭리사>는 약수가 깨끗하듯 깨끗하다. <완벽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섭리사>에 오면 살아나는 것이다.

35. <새 역사>에 와야, ‘성경의 위대함’을 깨닫는다. 왜?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6. <새 역사>에 안 와도 거기서 ‘자녀권의 역사’를 하지만, 해봤자 곤고하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아이도 낳고, 좋아하며 살아야 만족하고 기쁜 것이다.
37. <이 시대>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섬기고 사랑하며, 좋아하고, 기뻐 사는 시대다.
38.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말씀>을 전하여 ‘마음 흥분, 생각 흥분, 시대 흥분’을 시켜 줬으니, 믿음을 굳건히 하여라.
39. 지금은 할 것을 다 해 놓고, ‘영광을 받는 때’다.
40.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을 전해 주는 것’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것’도 영광을 받는 것이다.이같이 <영광>도 여러 가지로 있으니, 저마다 영광을 받을 때 각양각색으로 잘 보고 받아라.

◎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며 한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씀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